

※ 엠바고. 3월 2일(수) 14: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

민주당 선대위, ICT 프로젝트 이재명 AR 포스터 공개 “선거 벽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후보를 만나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유권자들의 다채로운 경험위해 다양한 ICT 기술 시도
- 2D 사진이 3D 영상으로! AR 포스터 속에 이재명 후보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메시지 담아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는 2일(수) 오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AR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재명 AR 포스터'는 민주당 선대위의 ICT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거 벽보나 공보물 등 평면의 이미지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가상 선거 포스터를 구현한 것이다.

기존의 선거 벽보나 공보물은 종이로 인쇄된 평면(2D)으로, 선관위가 규정하는 지면의 규격 내에 아주 짧고 단순한 정보만 담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늘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벽보를 그냥 지나치기 쉬운 현실이다.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특위는 단순한 2D 형태의 선거 벽보에 AR 기술을 접목해 보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과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재명플러스 앱의 'AR보기'를 통해 카메라를 실행한 뒤, 선거 벽보나 공보물을 비추어보면 증강 현실 속에 생생하게 움직이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총 10가지의 AR 콘텐츠가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재생될 예정이다.

‘이재명 AR 포스터’의 공개 브리핑을 맡은 윤영찬 미디어-ICT 특위 공동위

원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할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유권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메타버스, NFT, AI 그리고 AR까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캠페인을 준비했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재명 AR 포스터는 새로운 투표 인증 방식으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쓰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